

# 중국-한국 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

중국방직공업연합회 브랜드관리실(이하 “브랜드관리실” 이라 한다)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산업실(이하 “대중문화산업실” 이라 한다)은 양국간의 패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.

**제1조 (목적)** 이 양해각서는 “브랜드관리실” 과 “대중문화산업실” 양 기관이 주관하는 패션 비즈니스 행사를 통한, 양국간의 패션산업 교류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사업기본내용)

- (1) “브랜드관리실” 과 “대중문화산업실” 은 양국간의 패션산업 발전에 협력한다.
- (2) “브랜드관리실” 과 “대중문화산업실” 은 자국 혹은 지역 관련 기구가 주최하는 패션 관련 행사에 상대방을 주빈국으로 참가토록 요청하는 것을 조율한다.
- (3) “브랜드관리실” 과 “대중문화산업실” 은 매년 양국 패션산업 인사가 참가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사를 가진다.
- (4) “브랜드관리실” 과 “대중문화산업실” 은 각 국의 패션산업 관련 정보를 교류한다.

## 제3조 (주빈국)

- (1)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‘Fashion KODE 2015 F/W’ 에 주빈국을 중국으로 하고, “브랜드관리실” 이 추천하는 10개 브랜드가 행사에 참가하며, 참가비는 무료로 한다. 단, 참가하는 브랜드의 관계자 항공과 숙박은 개별 부담한다.
- (2) ‘Fashion KODE 2015 F/W’ 에 “브랜드관리실” 은 자국의 바이어에 대한 참여를 독려한다.
- (3) ‘Fashion KODE 2015 F/W’ 에 “브랜드관리실” 조직기구 관계자 3명과 “브랜드관리실” 이 추천하는 바이어 10명에 한하여 항공료와 숙박료를 “대중문화산업실” 이 부담한다.
- (4) “대중문화산업실” 은 ‘Fashion KODE 2015 F/W’ 에 참가하는 중국브랜드를 위해 적극 한국측 바이어를 연결시키고, 홍보한다.
- (5) “브랜드관리실” 은 “대중문화산업실” 이 추천하는 디자이너 혹은 브랜드가 중국의류산업의 유명도시(심천, 온주, 하문)에서 가지는 중요한 패션 행사에 참가토록 하고, 한국디자이너 혹은 브랜드가 중국의 바이어 혹은 기업과 연결되도록 적극 조율한다.
- (6) 제3조 (5)의 “브랜드관리실” 이 주관하는 2015년 패션 행사에 “대중문화산업실” 에 대한 초대를 제3조 (1),(2),(3)의 조건으로 조율한다.

**제4조 (교류회 및 정보교류)**

- (1) “브랜드관리실” 과 “대중문화산업실” 은각 10명 내외의 패션업계 전문가와 양국간의 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회를 개최한다.
- (2) “브랜드관리실” 과 “대중문화산업실” 은 상호 협의하여 각 패션행사 기간 내에 교류회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한다.

**제5조 (양해각서의 이행)** “브랜드관리실” 과 “대중문화산업실” 은 협력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양해각서에 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.

**제6조 (효력 및 기간)** 이 양해각서는 “브랜드관리실” 의 대표와 “대중문화산업실” 의 대표가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**제7조 (내용의 변경)** 양해각서 내용의 변경사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**제8조 (기타사항)** 이 양해각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양해각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른다.

이 협약서는 중국어, 한국어 각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4년 12월 19일

중국방직공업연합회  
브랜드관리실

한국콘텐츠진흥원  
대중문화산업실

---

---

---

---